

### 이창용 한은 총재 BIS총재회의 등 참석차 9일 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은은 이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 출국해 1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

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제10회 현대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양대 연극영화과의 연극 '무지성의 집단지성'과 영산대 연기공연예술학과의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가 연극과 뮤지컬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10회 현대자동차그룹 대학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 수상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그룹



### 벤츠 사회공헌위, 본사임원과 스쿨존 안전 캠페인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임원도 국내 어린이가 교통 안전 교육에 동참했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7일 서울 삼전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메르세데스-벤츠 AG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총괄 베티나 페처(Bettina Fetzer), 토마스 클라인 의장(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벤츠



### 예탁원 KSD나눔재단, 추석 맞아 쌀 나눔 행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부산남구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 단체 2곳을 대상으로 후원금 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정찬웅 부산남구장애인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서보영 KSD 나눔재단 사무국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인사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국장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임명(상임이사) △교통안전본부장 장찬욱 △자동차검사본부장 오태석 △자동차안전연구원장 엄성복 ◇상임이사 보직 변경 △기획본부장 김보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최흥진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서기관) 하윤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장(부이사관) 권수진 △국립소통실 소통정책관실 소통지원과장(서기관) 조성제
-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분별심사국장 장용오

##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 유통가 두 팔 걷었다

### 롯데·SPC·GS 등 구호물품 피해 심한 포항 중심 지원나서

유통업체들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힌남노는 지난 5일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특히 남부권에 큰 피해를 입혔다. 유통가는 강풍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나섰다.

7일 롯데 유통군은 포항시에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긴급구호물품은 생수, 이온음료, 컵라면 외 간식류 4200인분이다.

이선대 롯데유통군HQ 홍보실장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자체 자선재단 SPC행복한재단을 통해 SPC삼립 빵 3000개, 생수 6000개씩 총 9000개를



GS리테일이 지난달 8일,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위해 서초구청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GS리테일

피해가 집중된 포항 지역 복구작업 현장에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과 구호 인력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GS리테일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포항지역 이재민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음료 및

에너지바 등으로 포항시 구정초등학교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은 태풍 대비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담아 QR로 만들어 관련 부서에 배

포했다. 특히 편의점 GS25의 경우, 외부 냉장고 등 집기 이동을 지원하고 정전에 대비해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침수 우려 지역 점포를 위한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도 준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임진호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GS리테일은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백산수 4만병을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전국 대피소와 복구인력 지원에 전달했다. 농심 관계자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발 빠르게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삼성, 충북 청주에 11번째 '삼성 희망디딤돌' 건립

###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올부터 임직원 직접 선택해 기부

삼성 희망디딤돌이 11개로 더 늘어난다.

삼성은 6일 충청북도와 '삼성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를 설립해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2



(왼쪽부터)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권현숙 충북아동복지협회장이 협약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

월 청주에 새로 희망디딤돌을 개소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전남센터까지 합하면 11번째다.

청주 희망디딤돌은 최대 2년간 1인 1실 20개 독립 주거 공간과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자립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체험실, 북카페 등

으로 구성한다. 매년 보호시설을 나오는 보호종료 청소년 140여명에 디딤돌이 되어줄 예정이다.

센터 담당자들은 청소년들과 1:1 집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과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충청북도아동복지협회에서 운영을 맡는다.

희망디딤돌사업은 2013년 '신경영' 선언 2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부를 해서 시작했다. 250억원으로 2016년 운영을 시작했으며, 삼성전자가 2019년 250억원을 추가해 지역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상황, 그럼에도 많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 중에는 전문 코치 자격을 취득한 30명이 입주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멘토로 활동 중인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준문 프로는 "희망디딤돌 입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작은 역할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 물·불 뚫고 인명 구조한 표세준씨 등 3인 'LG의인상'

### LG복지재단 수해·화재 현장서 생명 구해

LG가 물과 불을 뚫고 이웃을 구한 영웅들에 감사를 전한다.

LG복지재단은 새로운 LG의인상 3인을 7일 발표했다.

국방홍보원 소속 공무원 표세준씨는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에서 폭우로 6차선 도로에 고립된 운전자를 구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물이 목까지 차오른 상황, 침착하게 플라스틱 표지판을 들고 헤엄쳐 인명을 구조하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표씨는 "순간 연배가 비슷하신 어머니가 떠올라 빨리 구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일단 물에 뜨는 뭐라도 가지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에 있던 표지판을 집어 헤엄쳐



표세준 씨

안창영 씨

문희진 씨 /LG

들어갔다"며 당시 상황을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경북지역본부 영주시 소속 안전순찰원 안창영, 문희진씨는 지난 7월 11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두음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져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출해냈다. 차가 수차례 폭발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공구를 챙겨 개진 유리를 들어올리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구조 이후 차량은 불길과 폭발 속에서 전소됐다. 구조된 운전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안 씨는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LG 관계자는 "위험한 수해 및 화재 현장에서 본인보다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LG 의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 중의학술복지재단 기초과학 연구자 장학생 선발·지원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2022 기초과학자 장학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과학자 장학생 선발'은 JW그룹이 국내 산업계에서 최초로 기획한 공모사업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기초과학자가 연구 기간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 임차료(월세)를 지원한다.

선발 대상은 국내외 석·박사 통합 3년 이상 또는 박사과정의 기초과학 분야(생명과학·의료공학·약화학) 내국인 연구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연구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